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관광경영학과	이름	김xx
파견국가	스위스	파견도시	제네바
파견대학	HEG(Haute ecole de gestion)	파견기간	2020, spring semester
귀국여부	귀국 완료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스위스 제네바는 인구20만명으로 인구 밀도가 높은 소도시입니다. 그럼으로 어딜 가나 자전거를 이용한다면 15분 이내로 모든 곳을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로 좁습니다. 제네바 국제 경영대학 역시 우리나라로 치면 고등학교 정도 규모의 작은 학교 입니다. 하지만 내부시설은 교내 카페테리아,도서관 그리고 로비 등 학생들을 위한 모든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인테리어 또한 깨끗하고 청결하여 학교 시설 부분에서는 만족도가 높습니다.</p> <p>제네바는 영어보다는 프랑스어를 많이 사용하는 나라 입니다. 은행이나 거주 비자 발급센터와 같은 공공기관은 영어로 대화가 가능하나 그 밖의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 영어로 의사소통은 어렵습니다. 비록 종업원이 영어를 하더라도 프랑스식의 영어라 같은 영어일지라도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으로 출국 전 기본적인 프랑스어와 유럽식 영어발음을 미리 사전에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p>
2020-1학기 수업	<p>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p> <p>수업은 대체적으로 교환학생은 학생들끼리 따로 받은 구성된 것이 아니라 일반으로 재학하는 현지 학생들의 수업에 그냥 들어가는 방식 입니다. 현지 학생들은 크게 우리나라와 같이 1,2,3,4 학년으로 나누어지는 학생들이 있고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part time job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느 반을 들어가게 될지는 내가 선택한 과목에 따라서 랜덤으로 배정됩니다. Part time job class에 들어가게 될 경우 밤9시까지 하는 야간수업까지 듣게 될 수 도 있습니다.</p> <p>Human resource management- 개인 적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았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과목입니다. 교수님께서 국제학생 온 학생들에게</p>

배려심도 많으시고 편안하게 대해주시고 가장 좋은 점은 타 과목들에 비해 과제가 하나밖에 없다는 점 입니다. 다른 과목들은 매주 한번씩 엄청난 양의 과제를 해야 하는데 이 과목은 큰 그룹프로젝트 한번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업내용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 누구나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Leading multicultural project team-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한 팀이 되어 각 팀들이 선정한 프로젝트를 실제로 이행하여 이루어내야 하는 과목 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조는 이번학기에 동아리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선정했다면 실제로 동아리를 만들어 그 활동을 해야 하며 동아리를 만드는 과정을 일주일에 한번씩 발표하는 과목입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피피티 발표를 하는 것이 귀찮기는 하지만 시험이 없고 처음 보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함께하는 과목이라 저와 같이 외향적인 성향의 사람이 선택한다면 영어실력 향상과 소중한 추억을 쌓기에 좋은 과목입니다.

*Quality management-*전형적인 해외스타일의 수업이며 개념이론을 배우고 팀 exercise를 통해 토론하고 연습해보는 과목입니다. 수업 난이도는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지만 내가 노력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나 매주 많은 양의 팀과 제 혹은 개인과제를 해야 하며 시험난이도 또한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라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하는 과목입니다.

Project management- 절대적으로 피하라고 말하고 싶은 과목입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수학을 못하는 까닭도 있기는 하지만 수학,계산을 기반으로 가지고 하는 수업입니다. 수학도 잘 못하는데 영어와 함께 들으려니 매우 힘들었고 매주 팀 exercise 과제를 해야 하는데 컴퓨터로 교육용 실습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이를 실습해보는 매우 어려운 작업을 해야 합니다. 시험 난이도 또한 매우 어렵고 이 과목은 외국인과 팀 하는 것보다 한국인이랑 팀을 구성하여 서로 의논하면서 진행해 나아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프로그램 운영	<p>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p> <p>국제학생들의 위한 프로그램은 매우 체계적이고 엄청난 시스템을 자랑합니다. 스위스라는 나라가 왜 선진국이고 엄청난 복지를 자랑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선 젤 좋은 점은 오리엔테이션 데이에 기본적으로 학생들에게 현화 120만원의 용돈을 현금으로 학생들에게 지급해 줍니다. 그리고 지역 전체 엄청난 학생특권을 받을 수 있는 복지 정보와 학교 생활들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비록 코로나 때문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취소가 되긴 했지만 제네바 지역의 개인이 갈 수 없는 다양한 견학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있습니다. 또한 <i>Rececca silvia</i> 선생님께서 유럽은 일 처리가 느리다는 인식을 못 느낄 만큼 일에 대해 열정적이며 많은 일들을 빨리 처리 하십니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제네바의 날씨는 우리나라 남부지역의 날씨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날씨부분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겨울에 가신다면 굳이 한국의 롱패딩이나 두꺼운 패딩은 가져가지 않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p>
안전	<p>안전성 부분에서 크게 위험하다고 느낀적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자신의 긴장감을 끝까지 유지하셔야 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 여행 후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배낭을 소매치기를 당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처럼 기차 선반 위에 올려 놓았는데 방심하는 순간 어느 순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주요 물품은 옷 속 주머니에 보관하여 큰 영향은 없었지만 소매치기는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p>

숙소	<p>학교기숙사() 홈스테이 () 외부 숙소(o) 기타()</p> <p>저는 cite-uni 라는 제네바지역 대학을 다니는 국제 학생들을 위한 통합 기숙사를 이용했습니다. 학교전용 기숙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네바는 이와 같은 많은 통합기숙사들이 존재하는데 스위스 학교에서 주는 정보를 통해 스스로 그 기숙사들을 찾고 입사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쟁률도 강하고 기숙사 이외의 숙소는 월세가 매우 비싸니 가능한 일찍 기숙사를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가 사용한 기숙사는 아파트형 원룸형식으로 혼자 사용하는 기숙사였습니다. 화장실, 샤워실, 주방은 공용이며 빌딩별,층별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또한 기숙사 안에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다양한 편의 시설들이 있으니 이를 잘 이용하시면 소중한 추억들을 만드실 수 가 있습니다.</p>
식사	<p>학교 Meal Plan () 학교식당 개별이용 (o) 홈스테이 ()</p> <p>외부식당 () 직접 요리 (o) 기타 ()</p> <p>스위스의 물가는 정말 살인적이다 라고 말 할 수 가 있습니다. 밖에서 밥을 사먹는 개념을 버리셔야 합니다. 버커킹 기본 세트 하나 가격이 한국돈으로 3만원이 넘으며 스타벅스 아메리카노가 만2천원 정도 합니다. 다행히 저는 밥술을 가져갔는데 '신의 한 수 였다' 라고 말 하고 싶습니다. Grocery는 그래도 한국과 비교하면 조금 비싸기는 하지만 그래도 밖에서 사먹는 것 보다는 엄청난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p>

교통	<p>학생복지를 받는다면 스위스에서 다양한 교통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5만원 하는 학생전용 제네바 교통권을 구입하신다면 제네바의 모든 버스 트램을 무제한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여 통학을 합니다. 또한 도시가 매우 좁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는 것도 추천합니다. 중고 자전거 시장이 매우 잘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돈으로 7~10만원이면 상태가 괜찮은 자전거를 구입할 수 있고 팔 때 도 비슷한 가격으로 다시 팔 수 있습니다.</p>
----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120만원 (왕복)	
Fees	<p>교환학생 파견 시 Tuition의 경우, 양교 협약에 의해 면제가 됩니다. 학교별로 Tuition 이외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이한데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상세히 적어주세요.</p> <p>예) University Support Fee, \$3,000</p>	
보험료	<p>자매대학에서 권하는 보험을 샀는지, 국내에서 해외 여행자 보험을 사갔는지 여부 및 보험 비용을 알려주세요.</p> <p>월 10만원, 스위스 현지 국제학생 보험 가입(개별 가입)</p>	
숙소	월 75만원 (보증금 70만원)	
식비	월 80만원	
교통비	월 15만원	
책값	x	
통신	3~4만원 (월)	
기타2		
합계	월 평균 약 200만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앞의 내용처럼 기본적인 프랑스어를 공부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일찍 기숙사와 비자준비를 하셔야 교환학생 준비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스위스 교환학생 비자는 까다롭고 준비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지 말고 "누가 해주겠지" 하는 마음을 버리고 냉정히 차근차근 준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 학생들 중에 결국 기숙사를 구하지 못하고 월120내고 생활하는 학생도 보았습니다. 스위스는 주거비가 비싸기 때문에 지금 일해야 나중에 돈을 아낀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첫 달은 거주허가증 발급비, 은행계좌 발급 비 등 많은 부분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저의 경우 일주일만에 100만원 나갔습니다. 첫 주에 소비가 많으니 한국에서 미리 많이 환전하여 스위스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앞서 제가 말씀 드린 내용대로 철저히 교환학생을 준비하신다면 정말 인생에 중요한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스위스 제네바는 UN, WTO, WHO, UNICEF 등 세계의 모든 주요기구가 모인 세계 국제도시 입니다. 이 곳에서 생활한다면 선진국의 국민성과 나라의 강인함을 피부로 보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사소하게 생각했던 부분을 이 나라에서는 꼼꼼하게 챙기는 모습과 나라의 강한 복지가 만드는 국민들의 삶의 여유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월 생활비가 200만원씩 소비되는 경제적 부담은 있지만 그 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에서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제네바는 외국인에게도 쉽게 일자리가 제공되는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로 교환학생과 해외취업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강력하게 추천 드립니다. 스위스의 임금은 한국에 몇 배가 되는 높은 샐러리를 자랑합니다. 저 또한 이것이 계기가 되어 현재 스위스의 해외취업을 준비 중입니다. 이곳에 교환학생에 오셔서 나의 시야도 넓히고 새로운 틀에서 벗어난 미래를 구축하시길 바랍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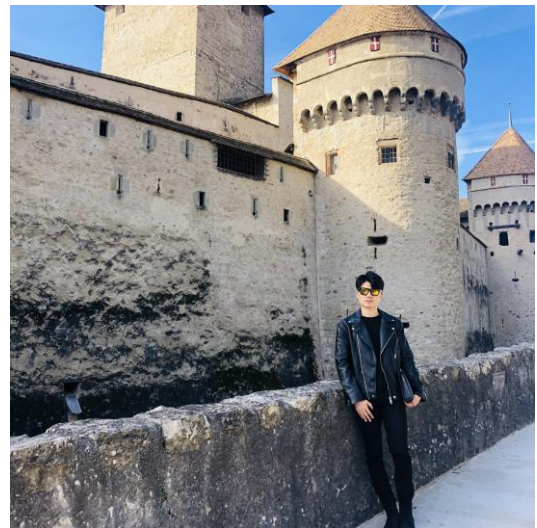
스위스 알프스산맥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스키 프로그램



스위스 아이스하키리그 제네바 직관



스위스 리그 제네바 축구경기장



제네바 내에 위치한 관광지



제네바 인근 관광지



제네바 UN기구